

高等學生의 衣服에 대한 態度와 欲求 및 家庭의 價値指向性과의 關係 研究

—原州市 男·女高等學生을 中心으로—

梁 承 珍

상지대학 병설 전문대학 의상학과

A Study of High School Students' Clothing Attitudes as Compared with Their Needs and Family Value Orientations

Seung-Jin Yang

Dept. of Apparel Design, Sangji Junior College

(1986. 1. 20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four aspects of high school students' clothing attitudes as compared with their needs and family value orientations. 2) to ascertain whether differences existed between boys and girls on four aspects of clothing attitudes.

Needs were measured through The Need Diagnosis Scale (Jaung-Ku Whang: 1965). Family value orientations were measured through The Home Environment Inventory (Won-Sik Jung: 1970). Four aspects of clothing attitudes were assessed by means of Lee; Kahng; Lee; Yang's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a sample of 576 senior high school students (285 boys and 291 girls) in Won-Ju. The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s, multiple regression, t-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Need for exhibi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exhibition and fashion interest for both boys and girls, and clothing conformity for boys only. Need for exhibi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clothing modesty for boys only.

Need for affili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exhibition for both boys and girls, fashion for girls only, and clothing conformity for boys only.

2) Social climber family value orient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conformity and clothing modesty for boys only. Materialistic family value orient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exhibition. Traditional family value orient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modesty for both boys and girls, and negatively related to clothing exhibition.

3) Girl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boys on attitudes toward fashion and clothing modesty, whereas boy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girls on attitudes toward clothing conformity.

I. 緒 論

衣服착용의 動機는 의복의 기능이나 욕구로서 학자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衣服은 신체적 욕구의 충족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욕구 충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Henry A. Murray 는 인간행동을 욕구와 압력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면서, 인간행동은 결코 욕구상태 하나만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환경만이 產物로서 설명할 수도 없다¹⁾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들^{2,3)}도 개인의 욕구와 환경, 특히 가정의 가치지향성을 포함한 가정환경의 관련성을 의미있는 결과로서 보고하였다. 이는 개인행동의 한 측면인 의복행동과 개인의 내면적 욕구와 가정의 가치지향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靑少年期는 異性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복이나 의모로서 사회적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므로 의복에 대한 관심이 크며,⁴⁾ 그들의 또래집단 기준에 맞게 의복을 잘 입었을때 자신감이 증가된다.⁵⁾ 그러므로 이들은 의복의 동조성이 강하며, 유행을 따르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청소년기의 고등학교생들의 1983년 교복자율화 실시후, 아직도 진정한 자율화가 정착되지 않은채 다시 교복제도의 부활이라는 문제는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녀고등학교생들의 의복에 대한 태도의 연구는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目的은 1) 男·女고등학교생들의 衣服에 대한 態度와 欲求 및 家庭의 價値指向性 변인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2) 衣服에 대한 態度에 욕구와 가정의 가치지향성이 상호작용하여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며, 3) 의복에 대한 태도의 남·녀 차이를 조사·분석하는데 있다.

II. 文獻의 背景

본 연구와 관련되는 문헌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욕구와 의복행동

Murray 는 “욕구”를 뇌속 부위에 존재하는 힘을 나타내는 가설적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하고, 인간과 인간의 근본적 차이를 욕구의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⁶⁾ 그는 욕구를 12개 유형의 생리적욕구와 28개 유형의 심

리발생적 욕구로 분류하였다. Murray 의 분류를 기초로 한 황정규의 욕구진단검사는 9측면의 욕구를 포함하며, 우리나라의 의복행동 연구들에 사용되었고, 특히, 과시욕구가 의복의 과시성·유행과 함께 많이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과시욕구 이외에 친애욕구를 청소년기의 강하게 나타나는 의복의 同調性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아 포함시켰다.

과시욕구는 남의 인상에 남기려하고, 남의 注意를 끌려하고, 남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며, 衝動을 주고, 놀래게 해주려는 욕구이다. 이 욕구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허영과 화려 및 자신감이며, 과장적·연극적·自己劇化하는 노출적 성격특성 및 태도가 형성된다.⁷⁾

친애욕구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하고, 즐겁게 협조 교제하려는 욕구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즐겁게 하고 그의 애정을 얻으려하며 친구에게 성실하려 한다.⁸⁾ 또한 친애욕구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에게 가까이 하여 즐겁게 협력하고 애정을 교환하려는 욕구⁹⁾이다.

욕구와 의복의 관계에 대한 서술에서 Kefgen 과 Touchie-Specht¹⁰⁾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정서적·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Horn 과 Gurel¹¹⁾은 의복은 흔히 감추어진 욕구(needs)나 욕망(desires)을 나타내며, 의복의 분석은 숨겨진 많은 심리적 과정을 간파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Cobliner¹²⁾는 위신 또는 사회적 지위를 위한 욕구가 fashion 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욕구와 의복과의 관계연구들에서 과시욕구가 많은 가정주부들은 의복의 과시성, 유행에 관심이 높았으며,¹²⁾ 또한 여고생들도 과시욕구가 높은 사람이 의복의 과시성 및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¹³⁾. 한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과시욕구가 강할수록 의복 선택에 있어 개성표현에 관심이 많으나 정숙성에는 관심이 적었으며, 친애욕구가 강할수록 실용성 위주의 의복선택에 관심을 나타냈으며¹⁴⁾, 의복디자인과 유행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친애욕구와 과시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

2.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의복의 貞淑性

가정의 가치지향성은 가족구성원이 생활원리로 示唆 받고 이로 인하여 행동의 규제를 받으며, 또 이로부터 이탈할때 죄의식을 느끼는 가정의 지배적인 價値體系¹⁶⁾이다. Roach 는 청소년기 행동양식은 그들 가정의 사회

계급지향 (social class orientation)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또래집단의 규범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형성된다¹⁷⁾고 하였다.

의복의 貞淑性에 대하여 Flügel¹⁸⁾은 인간의 기능을 억제하는 하나의 중동으로 간주하여 성적과시, 나체, 호화롭거나 아름다운 의복에 대한 억제, 혐오감·불만 억제, 신체의 부분적 노출이나 강조 금지 등으로 논의하였다.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의복행동 관련 연구들의 결과는 여대생들에게 있어 가정의 전통주의 및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이 의복의 정숙성과 관계가 있었으며¹⁹⁾, 남자고등학교 가정의 전통주의 가치지향성은 의복의 정숙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²⁰⁾.

이명희²¹⁾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의복의 정숙성과 의복의 등조성이 긍정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3. 의복의 同調性 및 유행에 대한 관심

Horn 과 Gurel에서 의복의 동조성과 유행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규범에 동조하므로서 소속감과 정체감을 가지려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모순이 의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 두 사회적 경향이 모든 유행을 만든다. 개인은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의복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하기 쉬우며, 동조의 압력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위한 욕구와 관련된다²²⁾는 것이다.

의복의 동조성에 관한 연구들^{23,24)}은 또래 집단의 수용과 집단의복기준에 대한 동조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Taylor와 Compton²⁵⁾은 의복의 동조성을 중요시하는 여대생은 주변 학생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 의향적인 남·녀대학생들은 다른사람과 비슷한 의상 및 유행에 관심이 높았으며, 남자의 경우 동조성이 높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²⁶⁾, 남자고등학교의 경우 유행형 의상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질수록 또래집단 의복규범에 적게 동조한 것²⁷⁾으로 나타났다.

III. 研究問題 敘述

고등학교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사회심리학적 변인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욕구(과시욕구, 친애욕구)와 의복에 대한 태도(과시성, 유행, 동조성, 정숙성)와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2. 가정의 가치지향성(사회상승주의, 물질지향주의, 전통주의)과 의복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3. 의복변인에 대한 욕구 및 가정의 가치지향성의 영향 정도를 규명한다.
4. 의복변인 상호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5. 男·女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다.

IV. 研究方法 및 節次

1. 측정도구

1) 欲求검사

Murray의 心理發生的 欲求求(가치의 욕구를 측정하는 黃禎奎의 표준화된 욕구진단검사 중 본 연구에서는 과시욕구 및 친애욕구 두측면의 각 24문항씩 48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측면의 욕구가 높은것을 의미한다.

2) 家庭의 價値指向性 檢査

鄭元植의 표준화된 家庭環境診斷檢査에서 가정의 가치지향성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상승주의, 물질지향주의, 전통주의의 각 11문항씩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실점에 맞지않는 1문항씩을 제외하고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세가지 하위변인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그 측면의 指向性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衣服에 대한 態度 檢査

의복에 대한 태도는 4측면, 즉 과시성, 유행, 동조성, 정숙성을 포함하며 모든 문항은 5점 척도의 Likert-type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측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의복의 과시성 : 선행연구^{12,18)}들에서 사용된 10문항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1문항을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다.

유행에 대한 관심 : 선행연구²⁶⁾에서 사용된 것중 10문항을 선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은 1문항을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다.

의복의 동조성 : 3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의복의 동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선행연구²⁷⁾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동조성 측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을 남학생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여학생용은 남학생용 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作成하

여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후 사용하였다.

의복의 貞淑性: 선형연구²⁰⁾에서 사용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유응답식 문항: 자료수집 당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착용하는 의복스타일, 규제대상의복, 정속하지 못한 옷차림 등의 설명을 포함시켰다.

2. 용어정의

- 1) 과시욕구: 남의 인상에 남기려하고, 남의 注意를 끌려는 욕구.
- 2) 친애욕구: 자신과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즐겁게 협조, 교제하려는 욕구.
- 3) 社會上昇主義: 家族員의 권력, 명성, 체통있는 사회적 지위에 속하기 위해 강력한 압력을 받으면서 生活하는 것¹⁶⁾.
- 4) 物質指向主義: 금전, 재산, 기타 물질적인 풍성과 富의 추구를 生活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¹⁶⁾.
- 5) 傳統主義: 이미 확립되어 전해 내려오는 규범, 생활방식, 禁己, 通念, 인습등을 따르려는 경향.¹⁶⁾
- 6) 의복의 과시성: 눈에 띄는 색이나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하므로써 注意를 끌려는 태도.
- 7) 유행: 유행형 의복에 관심을 갖고, 의복선택시 유행을 고려하며, 보조를 맞추려는 태도.
- 8) 의복의 동조성: 準據集團의 의복규범에 맞추어 옷을 입으려는 것.
- 9) 의복의 정속성: 신체의 과도한 노출, 밀착 또는 부분적으로 강조된 의복을 입거나 보았을때 정속하거나 정속하지 못한 느낌의 정도.

3. 標集對象, 資料蒐集 및 分析

본 연구는 강원도 原州市의 3개 男女高等學校(男高, 女高, 男·女共學) 2학년 학생 57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說問紙로 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1985년 11月初 3개 학교에 각 200부씩 배부하였다. 일주일 후 학과시간에 응답한 592部가 회수되었으나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576部(男: 285, 女: 291)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자료分析은 SPSS Package 를 사용하여 빈도분포, 평균, 표준편차,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test 로 검증하였다.

V. 結果 및 論議

1. 欲求 및 家庭의 價值指向性과 의복에 대한 태도의 관계

1) 점수분포경향

과시욕구 및 친애욕구(가능점수 범위: 0~24)의 점수범위는 과시욕구의 경우 남학생의 1~20점, 여학생이 1~21점 이었으며, 친애욕구는 男學生이 2~23점, 여학생이 7~22점이었다. 욕구진단점사요강에 따라 표준화 명가기준(백분위 기준) 50% 수준과 비교했을때 욕구가 높은 사람들의 빈도는 과시욕구가 남학생 285명중 77명(27%), 여학생 291명중 168명(58%)이었다. 친애욕구는 男學生은 179명(63%), 여학생은 146명(50%)이었다.

가정의 가치지향성(각측면 가능점수: 0~10)은 남자의 경우 사회상승주의와 물질지향주는 0~9점, 전통주의는 0~8점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사회상승주의 0~9점, 물질지향주의와 전통주의는 0~7점이었다. 전체적인 분포로 보았을때 남·녀 모두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았으며, 물질지향주의는 낮은 분포였다.

<표 1>은 의복에 대한 태도의 점수분포 경향을 요약한 것이다. 男·女모두 의복의 정속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남자는 동조성에서, 여자는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表 1> 의복에 대한 태도의 점수분포경향

의복변인 (가능점수)	점수분포	성별	
		男 (n=285)	女 (n=291)
과시성 (9~45)	27 이상	34%	30%
	24~26	23	21
	23 이하	43	49
유행 (9~45)	27 이상	36%	56%
	24~26	26	20
	23 이하	38	24
동조성 (8~40)	27 이상	55%	38%
	24~26	26	27
	23 이하	19	35
정속성 (10~50)	30 이상	71%	89%
	27~29	12	5
	26 이하	17	6

〈表 2〉 욕구 및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남자 n=285 여자 n=291)

독립변인	의복변인		과 시 성 (r)	유 행 (r)	동 조 성 (r)	정 숙 성 (r)
	성별					
욕구	과 시 욕 구	男	.356***	.241***	.161**	-.100*
		女	.349***	.259***	-.004	.055
가정의 가치 지향성	친 애 욕 구	男	.145**	.083	.171**	.078
		女	.121*	.160**	.068	.093
가정의 가치 지향성	사회상승주의	男	.063	.064	.240***	.146**
		女	.020	.192***	.041	.083
	물질지향주의	男	.110*	.032	.013	.020
		女	.135*	.162**	.029	-.021
	전 통 주 의	男	-.118*	-.089	.029	.188***
		女	.015	.031	.029	.251***

* p<.05 ** p<.01 *** p<.001

2) 욕구 및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의복변인과의 상관관계

욕구 및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욕구와 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서 과시욕구는 男·女 모두 의복의 과시성, 유행과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남자의 경우에 동조성과 정적상관, 정숙성과 負的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친애욕구는 남·녀 모두 의복의 과시성과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유행은 여자의 경우에만, 동조성은 남자의 경우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시욕구와 의복의 과시성 및 유행의 상관관계 결과는 선행연구들^{12, 15, 18)}의 결과를 지지하며, 선행연구들이 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남자도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으므로 성별에 관계 없이 과시욕구가 높을수록 의복의 과시성 및 유행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과시욕구는 의복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친애욕구는 남·녀 모두 의복의 과시성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져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의복의 과시성이나 유행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친애욕구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의복의 동조성과 관련이 있었고, 여학생 경우는 유행과 의미있는 관련이 있었다. 이는 동조의 압력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유지를 위한 욕구와 관련된다는 진술²²⁾과 선행연구결과들^{25~28)}을 지지하는 것이

며, 청소년기 남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동료들과 친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그들의 의복에 더욱 동조하려는 것이라 생각된다.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의복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에서 의복의 과시성은 男·女 모두 물질지향주의와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통주의와는 負的 상관관계가 있었다. 유행은 여자의 경우에만 사회상승주의 및 물질지향주의와 관련이 있었으며, 동조성은 남자의 경우만 사회상승주의와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다. 의복의 정숙성은 男·女 모두 전통주의와 관계가 있었고, 또한 남자의 경우에만 사회상승주의와 관련이 있었다.

의복의 과시성과 물질지향주의와의 의미있는 관계는 富의 추구를 生活의 기준으로 삼는 가정의 학생들이 의복을 富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므로써 의복의 과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사회상승주의와 유행이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위신 또는 사회적 지위를 위한 욕구가 유행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는 Cobliner의 연구결과¹¹⁾로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에서만 의복의 동조성은 사회상승주의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보다 높은 계층의 습관을 모방(copy)하는 것으로 상승이동이 가능하고, 이같은 상승이동은 보다 높은 계층의 외관적인 규범에 동조하는 것에 의존하며, 의복은 상향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징이라고 한 Horn과 Gurel의²⁸⁾ 진술로써 설명할 수 있다.

〈表 3〉 독립변인 상호 상관관계

독립변인		독립변인	친애욕구	과시욕구	사회상승주의	물질지향주의
성별						
과시욕구	男		.319***	—	—	—
	女		.324***	—	—	—
사회상승주의	男		.138**	.234***	—	—
	女		.204***	.274***	—	—
물질지향주의	男		.013	.180***	.239***	—
	女		.086	.255***	.024	—
전통주의	男		.237***	.083	.197***	-.003
	女		.160**	.231***	.348***	-.003

**p<.01

***p<.001

〈表 4〉 의복의 과시성과 독립변인들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성별	step	독립변인	B	Multiple R	R ²	R ² Change	Simple R	F
男 (n=285)	1	과시욕구	.473	.356	.127	.127	.356	41.12***
	2	전통주의	-.645	.386	.149	.022	-.118	24.66***
	3	친애욕구	.131	.392	.154	.005	.145	16.98***
	4	물질지향주의	.160	.395	.156	.002	.110	12.91***
	5	사회상승주의	-.247	.395	.156	.000	.063	10.30***
女 (n=291)	1	과시욕구	.463	.349	.122	.122	.349	39.99***
	2	사회상승주의	-.252	.357	.128	.006	.020	21.09***
	3	전통주의	-.197	.360	.130	.002	.015	14.28***
	4	물질지향주의	.147	.363	.132	.002	.135	10.83***
	5	친애욕구	.373	.363	.132	.000	.121	8.67***

Constant { -男=20.29
-女=20.67

***p<.001

한편 의복의 정숙성이 사회상승주의 및 전통주의와 의미있는 관련이 있었다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들^{19,20)}과 일치되는 것이다.

2. 의복변인에 대한 욕구 및 가정의 가치지향성의 상호작용

욕구와 가정의 가치지향성 변인들의 상호 상관관계는 〈표 3〉과 같이 친애욕구는 남녀 모두 전통주의, 사회상승주의 및 과시욕구와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으며, 과시욕구는 친애욕구, 사회상승주의 및 물질지향주의와 의미있는 관련이 있었으며, 사회상승주의와 전통주의가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다.

의복변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은 상관관계가 다른 의복변인들 보다 좀더 높게 나타난 의복의 과시성과 유행만을 검증하였다. 〈표 4〉

와 같이 의복의 과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과시욕구로서 男學生의 경우 총변량의 12.7%, 여학생의 경우 12%를 예언하며, 남자의 경우만 전통주의와 2% 정도 관련이 있었으며, 다른 변인은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와 같이 유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도 역시 과시욕구로서 男學生은 6%, 女學生은 7%를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변인 상호 상관관계

의복변인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의복의 동조성은 유행에 대한 관심과 男·女모두 의미있는 관계가 있어 선행연구결과²⁰⁾를 지지한다. 의복의 과시성과 유행에 대한 관심의 의미있는 관계도 선

〈表 5〉 유행과 독립변인들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성별	step	독립변인	B	Multiple R	R ²	R ² Change	Simple R	F
男 (n=285)	1	과시욕구	.293	.241	.058	.058	.241	17.37***
	2	전통주의	-.434	.264	.070	.012	-.089	10.59***
	3	친애욕구	.497	.266	.071	.001	.083	7.15***
	4	사회상승주의	.103	.268	.072	.001	.064	5.40***
	5	물질지향주의	-.553	.268	.072	.000	.032	4.33***
女 (n=291)	1	과시욕구	.242	.259	.067	.067	.259	20.83***
	2	사회상승주의	.569	.288	.083	.016	.192	13.04***
	3	물질지향주의	.363	.307	.094	.011	.162	9.95***
	4	전통주의	-.312	.314	.099	.004	.031	7.82***
	5	친애욕구	.123	.321	.103	.004	.160	6.55***

Constant { 男=22.82 ***p<.001
 女=21.23

〈表 6〉 의복 변인 상호 상관관계

의복변인	의복변인 성별	과시성	유행	동조성
		(r)	(r)	(r)
유행	男	.507***	—	—
	女	.453***	—	—
동조성	男	.131*	.316***	—
	女	.024	.168**	—
정숙성	男	-.423***	-.314***	-.031
	女	-.352***	-.178***	.098*

* p<.05 ** p<.01 ***p<.001

〈표 7〉 의복에 대한 태도의 男·女차이

男 n=285 女 n=291

의복변인	Group	Mean	SD	d.f.	T-Value
과시성	男	24.33	5.94	574	.72
	女	23.99	5.43		
유행	男	24.87	5.28	574	5.61***
	女	27.39	5.49		
동조성	男	26.73	4.11	574	5.21***
	女	24.91	4.23		
정숙성	男	33.43	7.40	548.84	7.30***
	女	37.55	6.08		

***p<.001

행연구결과¹²⁾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의복의 정숙성은 과시성 및 유행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의복의 정숙성에 대한 Flügel¹⁶⁾의 논의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의복에 대한 태도의 男·女차이

男·女高等學生의 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의복의 과시성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변인에 있어 남녀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행에 대한 관심, 의복의 정숙성은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의복의 동조성은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유기술문항 분석 결과

첫째, 남·녀 모두 주로 많이 착용하는 의복스타일은 jean 바지에 티셔츠와 겹벌리 형태이며, 여학생들은 의외로 셔츠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규제대상이 되는 의복스타일은 男學生은 원색의복, 정장양복, 여성화된 옷차림, 주머니·지퍼등의 장식이 많은 의복등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발목이 보이는 짧은 길이의 바지, 미니스커트, 원색옷, 그림이나 글씨 쓰인 옷, hood 달린옷 등이며, 바지길이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가장 불만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이란 男·女 모두 지나친 밀착이나 노출, 비치는 옷에 관한것이 주이며, 빅·룩(big look), 그림이나 지퍼·주머니등의 장식이 많은것, 최신유행이나 화려한 옷, 학생신분에 벗어난 옷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학교당국의 의생활지도에 반영된다면 청소년기 학생들의 합리적인 衣生活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結 論

이상의 결과로서 의미있는 관계를 종합해서 의복변

인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복의 과시성은 男·女모두 과시욕구, 친애욕구 물질지향주의와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으며, 男子의 경우에는 전통주의와도 負的 상관관계가 있었다.

2) 유행에 대한 관심은 男·女모두 과시욕구와 관계되며, 여자의 경우 친애욕구, 사회상승주의, 물질지향주의와 관계가 있었다.

3) 의복의 동조성은 남학생에게 있어서만 과시, 친애욕구, 사회상승주의와 관련되는 변인이었다.

4) 의복의 정숙성은 남·녀 모두 전통주의와 관계되었으며, 남학생의 경우만 과시욕구, 사회상승주의 변인이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 1) 이훈구역, 성격심리학(Hjelle, L.A. and Ziegler, D.J., Personality Theories: Basic Assumptions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서울: 법문사, 195, (1984)
- 2) 안득용, 개인의 욕구와 가정환경 변인의 관련구조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3) 강정규·최병원, 가정환경이 개인의 욕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6집, 41-59, (1971)
- 4)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270, (1966)
- 5)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2n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49, (1976)
- 6) 이훈구역, *op. cit.*, 187-188, (1984)
- 7) 황정규, 욕구진단검사 검사요강, 서울: 코리아 베스트팅센터, 4-5, (1965)
- 8) Murray, H.A.,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74-176, (1938)
- 9)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op. cit.*, 49, (1976)
- 10) Horn, M.J. and Gurel, L.M.,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4, (1981)
- 11) Cobliner, W.G., Feminine Fashion As an Aspect of Group Psychology: Analysis of Written Replies Received by Means of a Questionnaire. *J. of Soc. Psychol.*: 31, 283-289, (1950), in Ryan, M.S., *op. cit.*, 52, (1966)
- 12) 이금실·강혜원,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상관연구—서울의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 79-86, (1978)
- 13) 심소연·강혜원,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과시 및 자애욕구와의 상관연구—의복의 과시성, 유행, 교복 자율화를 中心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7(2), 53-59, (1983)
- 14) 정하신·이인자, 의복선택요인과 욕구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여대생을 中心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7(1), 27-35, (1983)
- 15) 정하신, 의상흥미와 욕구와의 상관연구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0(4), 23-31, (1982)
- 16) 정원식, 가정환경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아 베스트팅센터, 4, (1970)
- 17) Roach, M.E., Clothing and The American Family, in Roach, M.E. and Eicher, J.B., ed.,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and Sons. Inc., 86, (1965)
- 18) Flü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Inc., 53-67, (1930)
- 19) 이은주·이인자,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개인의 의복행동과의 관계—서울시내 여대생을 中心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1), 45-52, (1983)
- 20) 양승진·강혜원, 남자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연구—서울시내 남자고등학생을 中心으로—, 한국의류학회지, 9(1), 29-36, (1985)
- 21) 이명희,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22) Horn, M.J. and Gurel, L.M., *op.cit.*, 216, 227-229, (1981)
- 23) Smucker, B. and Creekmore, A.M., Adolescent's Clothing Conformity, Awareness and Peer Accepta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92-97, (1972)
- 24) Creekmore, A.M., Clothing and Personal Attractiveness of Adolescents Related to Conformity, to Clothing Mode, Peer Acceptance and

- Leadership Potentia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3), 203-215, (1980)
- 25) Taylor, L.C. and Compton, N.H., Personality Correlates of Dress Confor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60(8), 653-656, (1968)
- 26)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6, (1974)
- 27) 이주현, 남자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8) Horn, M.J. and Gurel, L.M., *op. cit.*, 283, (1981)